

 <b>인천광역시</b>	<b>보도자료</b>		<b>GLOBAL TOP 10 CITY</b> <b>INCHEON</b> 세계 10대 도시 인천	
	배포일자	2024년 7월 8일(월) 총 3매		
담당 부서 국제교류증진과	담당자	• 미주유럽팀장 김은진 ☎440-3241 • 담당자 조은정 ☎440-3242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캐시 톨튼 미국 알래스카주 하원의장, 유정복 시장 접견**  
 - 지난 3월 상원의원 방문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,  
 직항 개설 논의와 도시 간 교류 협력 한뜻 -

캐시 톨튼(Cathy Tilton) 미국 알래스카주 하원의장과 크레이그 존슨(Craig Johnson) 하원의원이 8일(월) 인천시를 방문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접견했다.

알래스카주 의원들이 인천을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엘비 그레이잭슨 상원의원의 방문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. 톨튼 의장은 외교부의 친한인사 네트워크 강화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7일 방한해 인천을 찾았다.

톨튼 의장은 알래스카주에서 10년 이상 활동 중인 중진의원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결의안에 대한 지지성명과 한-알래스카 친선축제 참가 등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.

- ▲ 2023.3월 알래스카주 상·하원 채택 「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결의안」 지지
- ▲ 2023.6월 한-알래스카 친선축제 참석 및 축사

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앵커리지를 방문해 데이브 브론슨 앵커리지 시장,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와 만나 양 도시 간 경제교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직항 재개나 전세기 증편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.

또 지난 3월 인천을 방문한 엘비 그레이잭슨 상원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료의원과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하며 “알래스카에 사는 7천여 재외동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후 발전 가능성, 잠재력으로 볼 때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하원에서도 직항로 개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” 고 전했다.

이에 대해 틸튼 하원의원은 “이번에 앵커리지와 자매도시인 인천을 방문해 인천의 발전상을 보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한다” 며 “알래스카주와 한국 특히 인천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직항개설에 충분히 동의하고, 시장님의 앵커리지 방문으로 재개된 교류가 민간교류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자매도시인 앵커리지와 인천의 학생교류를 제안한다” 고 말했다.

알래스카주는 한반도의 7배 면적으로 1959년 49번째로 편입된 미국 내 제2위 원유생산지로 방대한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, 한국은 알래스카주 제1위 수입국이자 제3위 수출국으로서 에너지 부분(석유, 광석/전자제품 등)에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미디어’→ ‘포토인천’→‘포토시정’(<https://tv.incheon.go.kr>)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